고흥군, 유자축제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추진

민간 플랫폼 웰로에서도 별도 이벤트 진행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포스터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1월 고흥유자축제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추진하고, 축제 현장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흥유자축제를 계기로 전국의 기부자들에게 고흥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알리고,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흥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모든 참여자에게 CU 모바일쿠폰 1만 원권을 지급한다. 별도의 추첨 없이 기부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고흥군에 기부한 참여자에게는 추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유자차 시음 행사와 현장 참여형 뽑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객산·서당항 어촌뉴딜3.0 선정…96억 투입

보성군은 회천면 객산항과 서당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에서 어촌회복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96억 원(국비 67억, 지방비 29억)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2025년 벌교읍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이은 쾌거로,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직선거리로 약 2~3km인 두 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각 항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데 있다.

한편, '어촌뉴딜 3.0은' 인구 감소와 산업 낙후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을 연계·통합해 재생하는 사업이다. 2019년 '어촌뉴딜300'에서 시작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거쳐 '어촌뉴딜3.0' 단계로 진화하며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기업인들의 특별한 나눔 실천

해남군에 지역발전에 한뜻을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이 이어졌다. 지난 5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환경시설 운영관리, 행사·영상 제작, 안전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나눔이 이뤄졌다.

리뉴어스㈜ 임종철 본부장과 코리아엔텍㈜ 이해윤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두기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남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지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에 따른 답례품 300만원 상당도 해남군에 재기부할 예정으로, 지역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을 실천한다.

마승원 ㈜대흥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행사 대행과 영상·비디오 제작, 디자인 및 편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제20회 소포검정쌀 축제 성황리 개최

지난 8일(일)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전통민속체험관 광장에서 '제20회 소포검정쌀축제'가 주민과 향우,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포리 마을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아 소포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방문한 향우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길쌈노래와 소포걸군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어린이북놀이, 난타공연, 초청가수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특히, 검정쌀 떡메치기와 검정쌀 떡막걸리 만들기, 검정쌀 가공식품 시식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소포 검정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와 간담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발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군수와 인구청년정책과장, 청년발전협의체 위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분야별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조성 현황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의 생활·정착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 청년발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청년발전기금 조성 등 청년의 지역 정착과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 제안 및 의견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한 뒤, 검토 결과를 협의체와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근 기자

가을 정취 물씬, 완도 국화전시회 11월 30일까지 열려

국화 전시부터 시화전도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전시회가 열리는 해조류센터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이 청정 완도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국화 전시회'를 준비했다.

국화 전시회는 10월 30일부터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완도해조류센터와 해변공원 일원, 완도타워에서 진행되며, 주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장에 선보인 국화 작품들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이 봄부터 정성껏 가꿔온 것으로 완도의 푸른 바다와 다도해 풍경이 어우러져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 중이다.

완도국화동호회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국화 분재도 전시되어 가을의 운치를 더했다.

매년 전시회와 함께해 온 완도문인협회의 시화전도 열려 은은한 국화 향기 속 아름다운 시 구절을 읽으며 문화적 감성까지 키울 수 있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많은 사람이 정성 들여 준비한 국화 전시회를 찾아 완도만의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농업·농촌의 볼거리를 발굴해 완도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화꽃과 지역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완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문화행사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